하늘뜻사람사랑 12-14-2014-137

2014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성탄 예배

2014 Christmas Service with Neighbor Religions

– 자비와 사랑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 –

일시: 2014 년 12 월 14 일(주일) 오후 5 시

장소: Assembly Hall,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2014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성탄예배

– 자비와 사랑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 –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Contemplation) ---------- 다함께

한마음 한노래(성탄시 Christmas Poem) ---------- 낭송: 장동인님
"흑인예수" (시, 이동순) – 3p

한마음 한노래(성탄절노래 Christmas Song) ---------- 다함께
"금관의 예수 Golden-Crowned Jesus" (민중가요 Korean Minjung Song) – 4p

짧은영상 (Short Video) ---------- 제작 상영: 김웅
"자비와 사랑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
"Toward Inter-Faith Compassion and Love"

자비와 사랑의 촛불을 밝히며(Candle Lighting for Compassion and Love) ---------- 다함께

자비와 사랑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독경 (Chant of Buddhism) ---------- 도암 스님 (맨하탄 조계사)
"반야심경"(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The Heart of Perfect Wisdom) – 5p

불교 축하 법문 (Dharma Talk of Buddhism) ---------- 도암 스님 (맨하탄 조계사)

원불교 축하 법문 (Dharma Talk of Won) ---------- 형산 양상덕 교무님 (원불교 미주 동부교구장)

천주교 강론 (Preaching of Catholic) ---------- 조 스테파노 신부님 (맨하탄 성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개신교 말씀 (Sermon of Protestant) ---------- 김동균 목사 (작은자공동체)

한마음 한노래(노래 Song) ---------- 다함께
"내 사람이여" (My Dear)" – 7p

이웃종교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탄기도 ---------- 다함께
Christmas Prayer toward World with Neighbor Religions – 8p

한 마음 한 노래 (성탄시 Christmas Poem)

흑인 예수

길바닥에서 자고 일어나
오가는 행인을 흐린 눈으로 바라보는
저 떠돌이 노인의 쓸쓸하고 텅 빈 얼굴 위에
그분은 와 계십니다

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뒤따라온 백인 경찰의 구둣발과 몽둥이에
무수히 짓이겨진 저 니그로 청년의 피멍 든 가슴속에
그분은 와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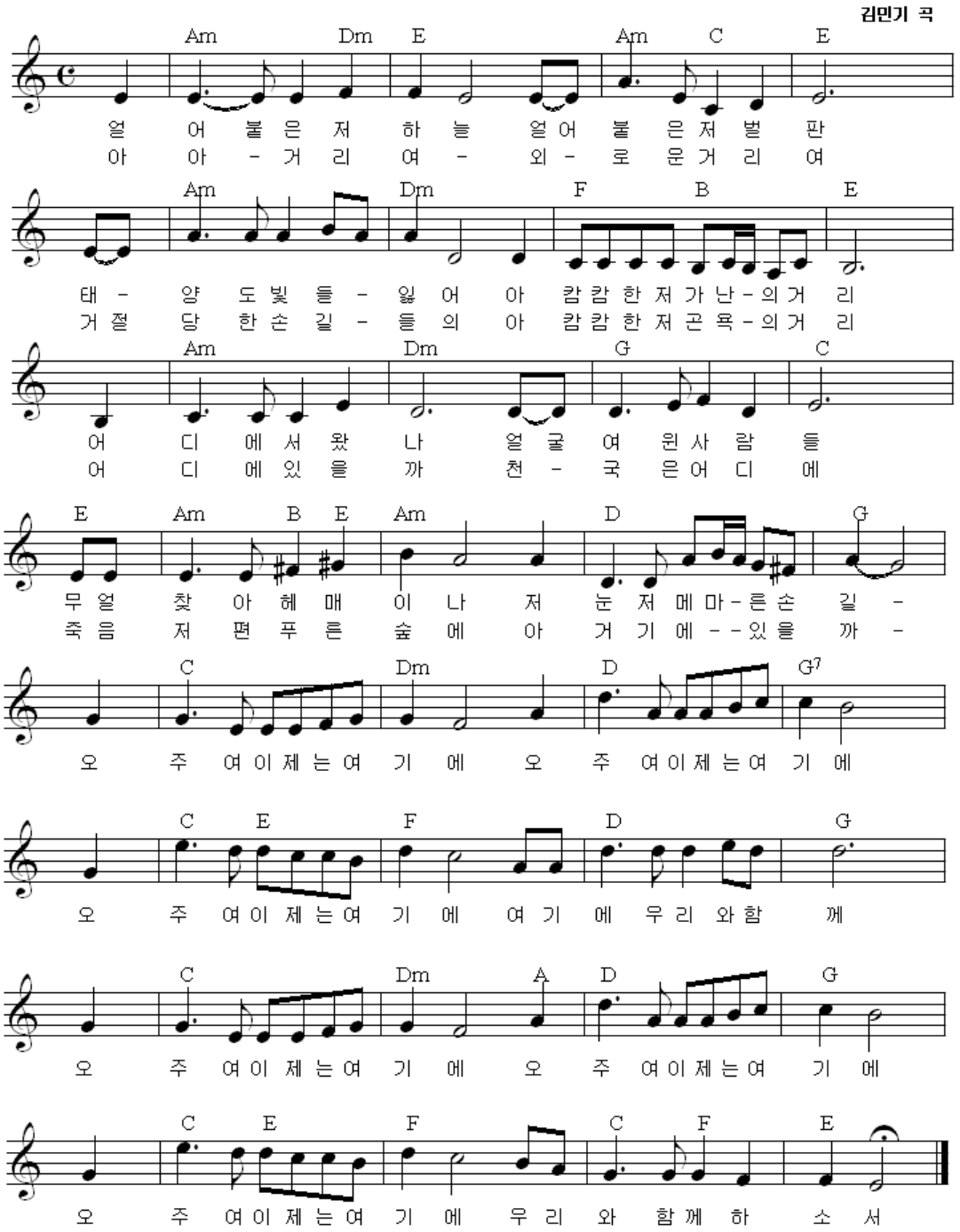
죽어서도 여전히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머금고 있는
총 맞은 마르틴 루터 킹 그의 두툼한 입술 위에
그분은 와 계십니다

붐비는 저녁 버스
잠든 엄마의 새까만 젖을 물고 두리번거리는
눈빛이 잘 익은 머루알 같은 아기의 맑은 눈 속에
그분은 와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제 길을 갈 때까지
세상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나비가 나비만의 고운 하늘을 얻을 때까지
그분은 와 계십니다

(시, 이동순 – 낭독: 장동인)

금관 예수


김민기 곡
Am Dm E Am C E
얼 어 붙 은 저 하 늘 얼 어 붙 은 저 벌 판
아 아 - 거 리 여 - 외 - 로 운 거 리 여
Am Dm F B E
태 - 양 도 빛 들 - 잃 어 아 캄 캄 한 저 가 난 - 의 거 리
거 절 당 한 손 길 - 들 의 아 캄 캄 한 저 곤 욕 - 의 거 리
Am Dm G C
어 디 에 서 왔 나 얼 굴 여 윈 사 람 들
어 디 에 있 을 까 천 - 국 은 어 디 에
E Am B E Am D G
무 얼 찾 아 헤 매 이 나 저 눈 저 메 마 - 른 손 길 -
죽 음 저 편 푸 른 숲 에 아 거 기 에 - - 있 을 까 -
C Dm D G7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C E F D G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여 기 에 우 리 와 함 께
C Dm A D G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C E F C F E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우 리 와 함 께 하 소 서

자비와 사랑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독경(Chant of Buddhism)

"반야심경"(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The Heart of Perfect Wisdom) – 독경: 도암 스님 (맨하탄 조계사)

摩訶般若波羅密多心境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密多時 照見 五蘊皆空度 一切苦厄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도 일체고액

舍利子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 受想行識 亦復如是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舍利子 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是故 空中無色

사리자 지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 공중무색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 乃至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無意識界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老死 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무의식계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집멸도

無智亦無得 以無所得故 菩提薩陀依 般若波羅密多 故 心無(가)碍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 심무가애

無(가)碍故 無有空怖 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 三世諸佛 依般若波羅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바라

密多 故得阿耨(누)多羅三漠三菩提 故知 般若波羅密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밀다 고득아뇩다라삼막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能除 一切苦 眞實不虛 故說 般若波羅密多呪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 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卽說呪曰, 즉설주왈,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苦提娑婆訶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3)

The Heart of Perfect Wisdom

Homage to the Perfection of Wisdom, the lovely, the Holy!

Avalokita Bodhisattva was moving in the deep course of the wisdom which has gone beyond.

He looked down from on high and saw but five skandhas which, in their own being, were empty.

"Here, O Sariputra, Form is Emptiness, Emptiness is Form;

Form does not differ from Emptiness, Emptiness does not differ from Form;

whatever is Empty, that is Form, whatever is Form that is Empty.

The same is true of feelings, perceptions, impulses and consciousness.

O Sariputra, all dharmas are marked with Emptiness, they have no beginning and no end,

they are neither imperfect nor perfect, neither deficient nor complete.

Therefore, O Sariputra, in emptiness there is no form, no feeling, no perception, no name,

no concepts, no knowledge. No eye, no ear, no nose, no tongue, no body, no mind;

no forms, no sounds, smells, tastes, touchables or objects of the mind, no sight organ,

no hearing organ and so forth to no mind consciousness element; no ignorance or

extinction of ignorance or extinction of ignorance, no decay and death, no extinction of decay and death.

There is no suffering, no origination, no stopping, no path, no cognition, no attainment, nor anything to attain.

There is nothing to accomplish and so Bodhisattvas can rely on the Perfection of Wisdom without trouble.

Being without trouble, they are not afraid, having overcome anything upsetting, they attain Nirvana.

All Buddhas who appear in the three periods, fully Awake to the utmost, right and perfect enlightenment

because they have relied on the Perfection of Wisdom.

Therefore, one should know the Perfection of Wisdom is the great mantra, is the unequaled mantra,

the destroyer of suffering. Because of this Truth, listen to the mantra:

Gate, Gate, Paragate, Para Samgate Bohisvaha Gone, Gone, Gone beyond, Gone utterly beyond

Oh, what an Awakening!

누가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Birth Story of Jesus in the Gosple of Luke

2:1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2:2 이 첫 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2:3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2:4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의 나자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2:5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 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2:6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2:7 드디어 첫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

2:8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2:9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2:10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2:11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2:12 너희는 한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하였다.

2:13 이 때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2:14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2:15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간 뒤에 목자들은 서로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을 보자." 하면서 2:16 곧 달려가 보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 2:17 아기를 본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2:18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2:19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2:20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이 천사들에게 들은 바와 같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2:1 In those days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2:2 This was the first census that took place while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2:3 And everyone went to his own town to regi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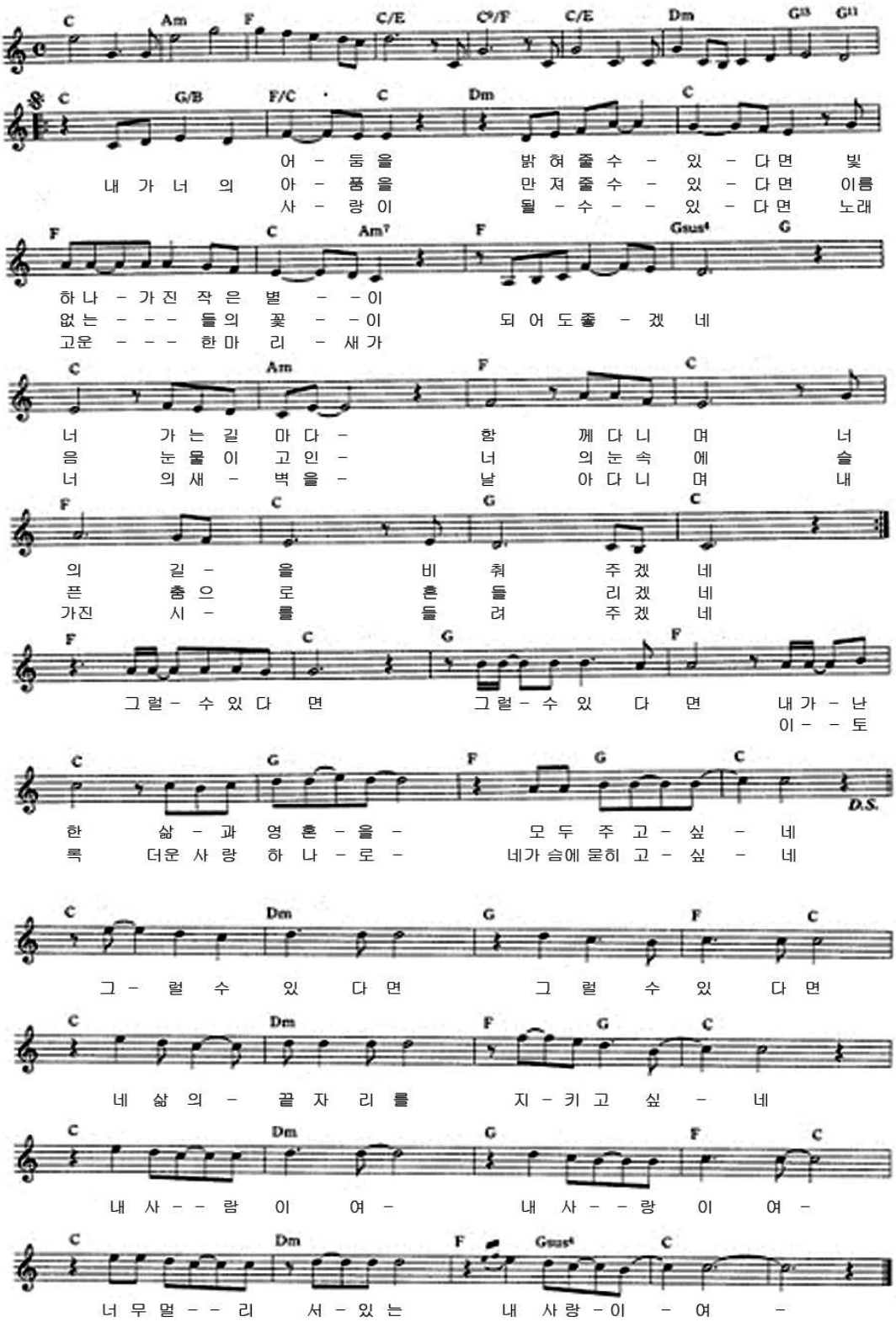
2:4 So Joseph also went up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o Judea, to Bethlehem the town of David, because he belonged to the house and line of David. 2:5 He went there to register with Mary, who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him and was expecting a child. 2:6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2:7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place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2:8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2:9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2:10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2:11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2:12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2:13 Suddenly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 appeared with the angel, praising God and saying,2: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2:15 When the angels had left them and gone in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s go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told us about." 2:16 So they hurried off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who was lying in the manger. 2:17 When they had seen him, they spread the word concerning what had been told them about this child,
2:18 and all who heard it were amazed at what the shepherds said to them. 2:19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2:20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 things they had heard and seen, which were just as they had been told.

내 사람이여

백창우 작사·곡



이웃종교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탄기도
Christmas Prayer toward World with Neighbor Religions

하느님,

이렇게 스님과 법우님들, 교무님들과 교우님들, 신부님 수녀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를 기리는 성탄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든 이웃종교들은
신앙의 대상, 전통, 수행방식이 다르지만,
그래서 서로의 신앙과 진리의 모양과 빛깔이 다름을 잘 알지만
우리는 이 다름을 넘어서서 이렇게 개신교의 성탄예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종교의 진리와 신앙이
그 종교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그 신앙과 진리의 고유성과 위대함을 알기에,
이웃종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귀중한 역할을 해 왔는지 알기에,
내 진리, 내 신앙처럼 서로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서로 만나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구도와 구원과 구세의 길을 걸으면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의 길 위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있음을 알기에
진리를 가슴에 담고 자비와 사랑의 등불 높이 들고서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 어둠과 탁함이 있는 곳,
진정한 이웃 되어 함께 찾아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밝히고, 함께 맑게하여
자비와 사랑 가득하고 정의와 평화 넘실대며 진리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을 이루려 하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을 이루려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합장하며 기도합니다.

아멘